

現象學에서 意識批評까지

李 起 哲

<목 차>

- | | |
|------------------|----------|
| I. 서 언 | V. 文學現象學 |
| II. 現象, 現象論, 現象學 | VI. 의식비평 |
| III. 현상학적 환원 | VII. 결 언 |
| IV. 의식지향성 | |

I. 서 언

이 글은 《語文學》 42집(韓國語文學會 1982, 11)에 실린 줄고 《意識批評의 개념과 適用方法試論》이라는 글과 밀접히 관련된다. 필자는 예의 글에서 의식비평의 개념을 테마비평과 의식비평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의식비평의 적용방법과 적용의 실재를 시험했다. 그러나 아직도 필자에게 남아 있는 의구심의 하나는 현상학이라고 하는 철학의 한 분야가 어떻게 해서 의식비평이라는 비평의 한 장르를 마련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물테면 철학과 문학과의 교량이 어떻게 하여 놓여지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었다. 막연히 말한다면 現象學은 1764년 독일의 철학자 람베르트(J. H. Lambert)의 신기관(Neo organon) 이후 현대철학의 가장 광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철학의 하나로서¹⁾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나 소쉬르의 언어학과 같은 분야와 마찬가지로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문학연구에까지 전파하여 비평의 한 배경이 되었으리라고 말해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의식비평에까지 이르게 된데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 다시 말하면 문학비평에서 그것을 원용해야 할만한 불가결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그 대강이라도 맥락을 캐어 보자는 데서 이 글은 쓰여지게 된 것이다. 現象學을 깊이 이해하려는 것은 필자로서는 분에 넘치는 일이고

1) 현대철학의 주류로서의 현상학은 실존철학과 더불어 영미 제통의 언어 분석철학에 대비되는 유럽철학의 주류이다. 申午鉉, 現象學과 實存哲學, 現象學的 存在論의 自我概念, 現象學이란 무엇인가. 韓國現象學會編 심철당 p. 163.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할 필요가 있는 일도 아니며 그렇게 하려면 본말이 바뀌어서 오히려 문학연구를 버리고 철학연구를 해야 하는 판국에 이르러야 할 염려도 없지 않는 일이니 여기서는 意識批評이 現象學의 어떤 면에 접맥되었으며 그 매듭은 어떤 점에서 풀어야 하는가 하는 점만을 고찰해 보는 것으로 그칠까 하며 그 나머지 일들은 필요하다면 필요한대로 후에 보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사실 필자는 이 글이 쓰여지기 전에 이 관계를 해명해 놓은 글이 있기를 무척 바랐지만 그런 글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現象學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朴異汶 교수의 〈現象學과 文學〉이라는 글이나 金鎮國 번역의 《文學現象學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이 그러한 점을 해명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 글들도 그러한 기대와는 사뭇 다른 글이어서 마침내 필자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II. 現象 現象論 現象學

現象이 있으므로 해서 現象論이 있고 現象學이 있을 것이므로 먼저 이 관계를 現象, 現象論, 現象學의 차례로 살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現象(phenomenon, appearance)

사람의 눈 앞에 나타나서 보이는 사물의 형상 또는 사람이 감성적으로 알거나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일이나 물건을 현상이라 한다. 플라톤에 있어서는 현상의 반대개념은 本體이고 브렌타노나 호터설의 경우는 假想이 되는데 플라톤의 본체론에 따르면 본체가 시공에 나타난 모양이 현상이다. 그러면 본체(nounmenon)란 무엇인가? 현상의 근본에 있는 실체, 즉 현상이 가변적임에 반해 근본적으로 항존적인 존재가 본체이다. 근본적으로 항존적인 존재란 무엇인가? 그것은 플라톤의 경우는 이데아가 되고 안셀무스(Anselmus)에 의하면 神과 같은 존재가 되지만, 본체를 증명하는 일 즉 본체론적 증명(ontological argument)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 칸트의 입장이다.²⁾

- 2) 칸트는 본체를 物自體(thing in itself)라 하고 物自體는 현상이 일어나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만 스스로는 현상하지 않고 감각에 의해서 인식되는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 즉 X〉라 표현했고, 그것을 理論理性(혹은 悟性)으로 인식하려면 철학은 독단론에 빠진다고 보았으나, 반대로 셸링(F. W. Schelling)은 지적 직관으로 物自體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으며 마르크스나 레닌은 물자체는 인간의 실천과 인식의 발전과정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우리들을 위한 사물(thing for our)로 전화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실제성과 인식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증명할 수도 인식할 수도 없는 본체(또는 물자체)가 아니라 증명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으며 오관으로 감지할 수 있는 삼라만상의 나타난 형상이 곧 현상인 것이다.

現象論(phenomenalism)

모든 지식은 현상에 한정된다는 설, 즉 모든 지식은 시간이나 공간에 나타난 사물이나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고 시간공간에 나타나지 않는 본체(물자체, 이데아, 신등)는 지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론,³⁾ 그러므로 시간이나 공간에 나타난 지식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이 현상론이다.

現象學(phenomenology)

현상은 감각기관으로 감지할 수 있는 나타난 형상을 말하고 이와 반대되는 것을 본체라고 칸트는 보고 있지만, 그러나 현상은 가상이나 환상과는 달리 인간의 경험적 실재라고 하여 물질이 운동을 하거나 정지하는 표상의 형식을 외부적 감성으로 파악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현상학이라고 하고 본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에 주어지는 여러 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모두 현상학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헤에겔은 현상이란 본래 정신의 현상이며 현상을 파악하려면 나타난 형상을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는 정신에 환원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현상학의 창시자인 훗서얼(Husserl)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적어도 방법적인 면에서 이들은 펍 유사성을 갖는다. 그러면 훗서얼의 현상학은 어떤 것인가? 훗서얼이 탐구의 대상으로 하는 현상은 의식의 체험이며 현상학의 목적은 체험의 탐구이다. 훗서얼은 브렌타노(Brentano)가 제창한 심리현상의 기술 개념을 인식론적으로 발전시켜 記述的 심리학이 의미하는 체험이 아니라, 그 체험의 본질—체험의 근저에 놓여있는 로고스를 밝혀 내려고 한다.⁴⁾ 훗서얼은 현상학을 엄밀한 학문으로 정립하기 위해 명정성이 없거나 선입견과 독단에 은폐된 통속적 현상을 거부하고 순수한 의식의 내면성을 추구하려 한다. 그에 의하면 모든 사실은 그 자체의 고유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수학에서 다루는 數, 논리학에서 다루는 논리적 사실,

3) 이는 칸트나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의 주장인데, 이들은 현상이 아닌 본체가, 우리가 알지는 못하거 의식 밖에 존재하기는 한다고 보지만 마하(E. Mach) 등은 그것조차도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부정해 버린다.

4) 金英漢, 現象學의 사고와 체험의 本質, 月刊朝鮮 3~10, pp. 70, 71.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꽃〉 〈자연〉 〈사회〉 〈역사〉 등은 그 자체의 고유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나 사상들은 일상적이고 자연적 태도에 있어서는 인위적인 선입견과 편견때문에 그 고유한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며 이러한 사상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연적 태도에 얽매어 있는 독단적 편견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나 순수의식에 체험된 사상을 그대로 관찰해야 한다고 한다.⁵⁾ 그리하여 그는 현상학이 학문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현상학을 〈제1철학〉이라고 명명하고 현상학은 〈철학의 기초학〉이라고 주장하며, 현상을 관찰하는 태도와 눈은 무엇보다 〈사실 그 자체로〉라고 강조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현상학적 방법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 사용했는데 그러한 방법을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용어를 먼저 만나게 된다. 그 용어의 중추적인 것을 들면 대개 〈현상학적 환원〉 〈本質直觀〉 〈노에시스와 노에마〉 〈의식의 志向性〉 등이 된다.

Ⅲ. 現象學的 還元(The phenomenologie reduction)

사물이나 사상의 순수한 형상을 독단이나 선입견 없이 바라보기 위해서는 순수의식을 도출해야 하고 순수의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상학적 환원이 필요하게 된다. 말하자면 형상적 실재를 의식 속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환원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물이나 사상을 자연적인 것으로 인식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으로 끌어들여 내재적 사물이나 사상으로 파악하려는 태도가 환원인 것이다. 후설은 자기 철학에서 이 환원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방법론의 하나로 생각했다. 이때 자연적인 사상은 순수한 자연이란 뜻이 아니고 선입견이나 편견 독단이 섞여 있는 상태로서의 자연이기 때문에 그러한 독단이나 선입견을 벗어나서 순수한 현상으로 직관하기 위해서는 이 대상을 의식 속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순수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라 의식 속에 내재화되는 상태인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현상학이란 본질에 관한 연구이며 이때의 본질은 지각과 의식의 가장 순수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현상학이란 선입견 편견 독단이 섞여 있는 자연적 태도로부터 제거되는 판단들을 중지하여 그들을 보다 바르게 이해하려는 초월적 철학이라고 말한다.⁶⁾ 사물의 본질은 마치 과

5) 윌클 pp. 71~72.

6) 메를로·퐁티.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문학현상학의 이론과 실제, 김진국역 명진사, 1980. p. 31.

일 속의 씨가 과일 속에 들어 있듯이 그렇게 들어 있지는 않다. 그것은 사유작용을 통하여 우리의 의식 속에 구성된다. 따라서 물리적으로는 사물을 아무리 분해해도 그 본질을 발견할 수가 없다.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구성하는 원천인 의식의 내부에로 되돌아 가야 한다. 이러한 인식상황에 적용되는 방법이 환원이다.⁷⁾ 환원이란 술어는 현상학의 방법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판단중지(Epoché) 괄호치기(Einklammerung) 배제(Ausschaltung)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도 괄호치기와 배제는 판단중지에 부수되는 상황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판단중지는 어떤 사물에 관한 우리의 일상적인 판단 혹은 명징성을 갖지 못한 것을 괄호에 넣어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환원에서 중요한 것은 환원과 판단 중지이다. 그러나 판단중지도 환원의 한 절차로서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환원의 절차를 제일 먼저 판단 중지 두 번째로 형상적 환원, 세 번째로 선험적 환원으로 놓을 수 있다.

판단 중지(Epoché, Suspension of Judgement)

우리의 감각이나 지식적 판단은 사물에 대해서 진실도 말할 수 없고 거짓도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고 언명한다. 모든 것은 사물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의 실재와 眞을 파악할 수 없고 다만 현상만 그대로 받아들일 뿐 그에 대한 일체의 판단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적 세계나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가상의 세계는 항상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것이며, 이러한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것에서 오는 판단 역시 불확실 불완전한 것이므로 거기 대한 판단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맑은 물에 잠긴 유리컵 속에 플라스틱나 막대를 넣었을 때 막대가 꺾여져 보이는 현상과 같다. 이때 꺾여져 보이는 세계는 감각세계(경험세계)이지 사물의 본체는 아니므로 그러한 유리컵 속의 프라스크나 막대는 꺾여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이며 그러한 판단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다.

일단 판단이 중지되고 나면 현상학적 환원이 다음 단계로 필요하게 되는 데, 이 단계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가 형상적 환원이고 다른 하나가 선험적 환원이다. 형상적 환원은 본질적 환원으로서 모든 자연적 혹은 경험

7) 申龜鉉, 現象學的 還元과 그 哲學的 的의, 現象學이란 무엇인가. 한국현상학회 편 심설당 1983 p. 64.

적 태도를 버리고 사실의 본질을 그 직접성 구체성에서 직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본질직관(Ideation)이라 하는데, 이를테면 뜰에 핀 붉은 장미꽃에서 장미꽃의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붉은 색깔 그 자체를 보는 것 또는 여러 가지 3각형(△▽△)은 외양은 모두 다르나 이들은 공히 내각의 합이 180도 이다라든지, 공히 3변을 가진다라든지 하는 등의 공통적 속성을 찾는 것이 본질 직관이다.⁸⁾ 이와 같이 사실이나 대상보다는 그것의 본질을 중시하고 모두 사실에서 본질로 옮겨 가는 일을 형상적 환원이라 하며 사실을 다루는 사실학에서 본질을 다루는 본질학으로 옮겨가는 단계에서 대상의 본질(사실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을 현상학이라고 훗서얼은 말한다.

그 다음 단계가 선험적 환원단계인데, 본질적 환원(형상적 환원)이 사실의 본질을 보는 태도라고 한다면 선험적 환원은 사실의 본질을 의식의 내부로 끌어들여 내재적인 본질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본질적 환원에서의 초월적인 본질이 여기에서는 의식에 내재하는 본질, 즉 의식의 본질로 환원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현상학이라는 것은 먼저 형상적 환원(본질적 환원)에 의하여 자연적(경험적) 사실을 배제하고, 다시 선험적 환원에 의하여 초월적인 본질을 배제한 뒤에 남은 소위 현상학적 잔여⁹⁾로서의 의식(순수한 의식)의 현상을 분석하고 기술하는 분야임을 알 수 있고 훗서얼이 이것을 모든 학의 기초가 되는 제 1 철학이라고 강조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Ⅳ. 意識志向性(Intentionclität)

여기서 우리는 훗서얼이 말하는 현상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대상이 의식이며, 모든 현상 가운데 가장 순수한 상태의 것이 의식이라는 것을

8) 본질 또는 본체는 신 또는 이데아의 세계로써 현상을 초월해 있다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이고, 본질이 개체적 사물에 존재한다는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實在論이며 본질은 지성에 의해 추상된 개념으로 존재한다는 입장은 概念論者들의 주장이다. 여기서의 본질직관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적 실재론에 근거한 셈이며 이 셋 중 어느 하나만을 본질론으로 국한 시킬때 Aporia가 생긴다. 세계철학사전성균서관 pp. 429~430. 본질은 사실속에 있는 것이므로 이 순수한 본질을 파악하려면 경험적태도에서 본질적 태도로 전환해야 하고 사실에 관한 모든 판단을 중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배경으로 후퇴하게 되고 그 본질만 직관되게 된다. 같은 사전 p. 1245.

9) 본질적환원과 선험적 환원에서 배제하고 남은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의식이 된다.

알았다. 그러니까 본질적 환원과 선험적 환원에서 배제되고 남은 현상학적 잔여란 바로 순수 의식이며 이 순수의식의 구조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이 훗서얼의 현상학임을 알게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세계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을 알아내는 힘은 의식의 힘이며 이것만이 가장 순수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훗서얼이 말하는 순수의식의 본질과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의식 志向性〉에 있다. 의식은 항상 무엇에 대한 의식이며 그것은 객관적인 어떤 대상과의 독특한 관계를 가진다. 어떤 대상에라도 관계되지 않는 의식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의식하는 주체, 혹은 작용(act)과 객체 혹은 대상과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의식이 대상에 대해서 갖는 모든 관계를 지향성이라 한다는 것이다. 사물 세계란 나(주체)의 의식에 〈對〉한 〈象〉으로서의 대상세계이며 의식이 의식 스스로에 〈對〉해서 내세우는 〈象〉으로서의 대상세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¹⁰⁾

노에시스(Noesis)와 노에마(Noema)

의식의 표상작용 혹은 의식 지향성을 해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노에시스와 노에마이다. 노에시스는 의식의 기능적 작용적 측면을 가리킨다. 노에시스는 순수한 사유작용이며 노에마는 직관된 본질이다. 한 나무가 지각될때 그 나무를 바라봄이 노에시스에 해당한다. 노에마는 노에시스와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노에시스가 나무를 바라봄이라면 노에마는 바라본 나무의 어떠함이다.¹¹⁾ 노에시스는 의식의 심적이며 실재적 요소이고 노에마는 의식의 의미적 요소이다. 그러나 이 둘은 항상 어떤 관계 아래에 놓인다. 말하자면 노에마가 없는 노에시스가 없고 노에시스가 없는 노에마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은 항상 무엇인가를 향하여 움직이고 그 움직임에는 어떤 형상이나 질료로서의 것이든 대상이 놓여 있는 것이며 대상에 대한 이 의식의 지향성, 작용에는 무념무상 같은 것은 없는 것이다.

원형구조와 변양구조

지향성은 表象, 知覺, 記憶, 想像 등과 같은 여러가지의 종류로 작용한

10) 車仁錫, 現象學에 있어서 志向性和 構成, 現象學이란 무엇인가 심철당 p. 46.

11) 브렌타노는 노에마라는 계기가 있음을 알지 못해 작용(act)과 대상(object)의 二分法을 사용했지만 훗서얼은 노에시스—노에마—대상을 구분했는데 이는 노에마는 〈푸른 사과나무〉〈강한 목질의 나무〉등에서 〈푸른〉〈강한〉〈사과〉등에 해당한다고 한다.

다.¹²⁾ 이러한 여러 가지 지향성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각 지향성이며 지각 지향성에 있어서의 노에시스와 노에마는, 가령 우리가 책을 보고 그것을 지각한다고 할때 이것이 복사되거나 재생된 어떤 것보다 선명하기 때문에 이를 원본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원본적인 지향성은 그 책을 읽고 난 뒤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기억해 낸다거나 미래의 어느 때에 지각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때의 지향성은 원본과는 달리 변양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변양구조라 하고 원본적인 지향성은 많은 변양구조를 지닌다는 것이다.

V. 文學現象學

문학현상학은 대개의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학문이나 비평들이 인간이나 인간의 사유, 의식작용 혹은 그 의식 작용에서 산출한 문학작품들을 기계적 존재로 이해 분석하려는데 반대한다. 그리하여 문학현상학은 인간을 더 이상 기계적 존재로 이해하지 않으며 하나의 <세계 내 존재>로 이해하려 하는 것이다. 사실 문학이란 <인간의 기록>인 것이며 이 인간의 기록인 문학을 기계적으로 분석되거나 처리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인간을 지향적 의미구조로 인식함으로써 인간의 기록인 문학을 현상학적으로 해명하여 내적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학현상학은 현대비평을 주도해 왔던 과학주의와 객관주의를 극복하여 과학적 선입관을 배제하고 인간의 생체현의 주관성을 강조, 작품의 내재성과 작가의 진실한 체험적 의식, 상상적 의식을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다.¹³⁾ 그러나 이때의 현상학적 기술 혹은 현상학적 바라봄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 획일적인 것도 아니어서 한마디의 설명이나 하나의 제보를 작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문학현상학이 지금까지 작품의 이해에 사용된 예들을 몇가지로 분류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분류해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하이데거, 딜타이, 메를로 폰티의 해석학

하이데거의 문학의 해석은 <헤르타와 시의 본질>에 거의 압축되어 있다. 하이데거의 문학해석의 요체는, 시는 존재에 대한 최초의 명명이며 모든

12) 申龜鉉, 志向性에 관한 研究, 哲學會誌 제 9 집 영남대철학과 1982, p. 30.

13) 金鎮國, 앞책 서문

사물에 대한 명명이다. 다른 여타의 언어행위와는 달리 그러나 이 시의 언어에 의하여 최초로 개명되는 모든 것들은 개명됨에 의해서 일상의 언어로 담론된다.¹⁴⁾ 시는 어둠속의 사물을 개명안에 들게한다 라든지, 시는 무명의 사물에 이름을 부여하는 일이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모든 다른 종류의 사고는 진리의 이러한 원시적인 개명으로 부터 유도되어지며 그것은 벗겨냄(非蔽性)의 작용을 가능케 한다. 인간은 시적으로 이 대지 위에 거주하며 시는 그러한 존재의 집이 되고, 시인은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간자가 되는 것이다.

딜타이의 해석학은 그의 저서 《해석학의 탄생》에서 주장된대로 자연과학과 인간과학을 구별하는 것이 학문의 근본 문제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자연과학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의식이나 감각이나 언어에 의하지 않고 그 자체로 다루지만 인문과학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상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의미를 다루며, 그 의미는 결국 인간의 삶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는 것을 다룬다. 이런 점에서 물리학은 해석학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문학은 해석학의 대상이 된다.¹⁵⁾ 딜타이의 해석학은 결국 인간의 삶의 해석으로서의 학이다.

카이저와 슈타이거의 해석학은 하이데거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의 본질은 역사나 사회등 외부적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 내부적 사실에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시의 해석은 내재적 해석이 되어야 하고 그외의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렇다. 하이데거가 월더린의 시의 본질규명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고 월더린은, 언어는 인간이 가진 재보중 가장 위험한 재보라고 했듯이 카이저나 슈타이거의 문학의 해석은 모두 문학을 있게 한 언어의 해석이라는 관점은 그러므로 같은 바퀴에 얹혀있는 셈이다.

메를로 퐁티는 하이데거 철학, 〈세계 내 존재〉를 구체화 시킨다. 인간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단순한 육체적 존재만도 아니고 순수한 정신의식만의 존재도 아니다. 퐁티는, 경험주의는 의식을 너무 수동적으로 보고 주지주의는 의식의 활동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고 보며 그리하여 그는 경험주의와 주지주의를 절충하는 일종의 중도적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퐁티 철학의 애매성으로 지적되기도 한

14) 버논그라스, 문학현상학서설 윗책 p. 14.

15) 朴異汶, 現象學과 分析哲學, 一潮閣 1977, p. 58.

다.¹⁶⁾ 현상학은, 세계와 직접적이며 원초적인 접촉을 이루며 이 원초적 접촉은 육체로 인해 이루어지지만 그 접촉은 지각을 통해 의식된다는 것이다.

바실라르는 모퉁과 함께 심리학에 비평의 근원을 둔다. 바실라르는 그의 탐구를 이미지에 한정시키며 그 이미지의 형성을 창조과정에 있어 근원적인 순간으로 파악한다. 그에 있어서 이미지는 다른 무엇의 대체물이 아니며 온전히 그 자신 고유의 존재론적 당위성을 가진다. 이때의 이미지는 의미가 탄생되는 공간인 대지가 익어 터지는 순간과 같은 것이다. 이미지는 내면과 외계, 물질과 정신을 결합한다.¹⁷⁾ 따라서 문학작품은 이미지의 분석으로 해명이 가능하며 이때의 이미지는 이미지의 다발(이미지의 연합망)에 의해 포착 이해된다. 그의 이미지 비평관은 사실 이미지를 한 현상으로 보는 이미지의 현상학인 것이다.

샤르트르는 실존주의 현상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특히 그는 〈상상력의 심리학〉에서 상상력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의식의 전체라고 강조한다. 의식은 항상 상상력으로 가득차 있다. 의식하고 상상함으로 해서 문학은 가능한 것이고 실존의 확인도 가능하며 실존이라는 것 역시 현상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서 그의 철학과 문학은 윤리적인 문제에 모두 접맥된다. 그런 점에서 그는 도덕주의자라 할 수 있다. 그가 그의 철학과 문학에서 내세운 양가쥬망론은 문학은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며 문학은 인간이 살아오면서 환경에 의해 상실한 자유를 되찾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풀레(G. Poulet)는 문학을 인간의 의식의 역사라고 규정한다. 그는 사실 의식비평(Critics of consciousness)이란 용어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이며 제비바 학파가 문학에 있어 의식을 문제시하게 한 동인이 된 사람이다. 그는 형식주의를 거부하며 문맥위주의 문학연구를 거부하고 문학작품은 유연하고 연상적인 것으로, 그것의 해석 역시 정신적 우주를 바라보는 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⁸⁾ 의식비평은 사실 작가가 작품을 쓸때의 의식을 추적하는 것으로, 작가의 의식의 그늘속에 묻혀있는 부분, 혹은 트라우마(심적 상흔 또는 정신적 상처)를 찾는 작업에서 이 비평방법은 수행된다.¹⁹⁾ 그러면서

16) 윗책 p.98.

17) 비는 W. 그라스, 김진국 앞책 p.18.

18) 拙稿, 意識批評의 概念과 適用方法試論, 語文學 42집, 韓國語文學會 1982, p.144.

19) 방법적인 문제는 줄고 앞 논문 참조.

그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시간문제를 그의 중요한 비평대상으로 하여 《인간적 시간 연구》 3권을 저술한다.²⁰⁾

베베르(J. P. Weber)의 테마비평은 작품속에 반복되고 지속되는 모티프 혹은 테마를 추적하는 한 비평방법이다. 이 비평에 있어서의 문학 텍스트는 하나의 증세(symptom)를 이룬다. 이 증세의 개념은 모든 텍스트를 집약하여 그 전체를 단번에 지시할 수 있는 어떤 총체적 이미지 하나를 찾아내는 일에 관심이 쏠려 있다. 텍스트를 문헌으로 간주하는 실증주의 비평가는 디테일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텍스트는 전기를 위해 중요한 요소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신비평(구비평에 대한 모든 새로운 비평, 여기서는 특히 테마비평)에서는 오히려 텍스트에서 집약된 증세나 이미지를 찾는 데 골몰하는 것이다.²¹⁾

Ⅵ. 意識批評(critics of consciousness)

형식비평이 문학작품상에 나타난 언어와 그 언어가 이루어 내는 외형적 양식 짜임등을 분석하는데 치중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술 작품은 시제수리공처럼 시제속에 들어 있는 기제들을 뜯어내고 분리하는 작업에만 만족하지 않고 그 작품의 내부적 사실, 그 문학 작품에 나타난 언어 이미지등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작가(시인)와 어떤 의식적인 관련을 가지는가 그 개별적 어휘나 이미지는 작가의 의식속에서 어떤 심적트라우마를 가진 것이며 어떤 의식의 빛과 그늘을 현현하거나 묻어두고 있는 것인가? 작품에 나타난 제반 사실들은 그 작가의 환경이나 생장과정과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인가 하는 사항들을 추구하고 이러한 개별적 사실들과 관련된 사실들(심적 상흔, 의식의 빛과 그늘, 생장환경이나 과정 등)은 그 작품이 가지게 되는 필연적인 상관성 속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 이 사실들을 분석적이라기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추구하자는 것으로서 의식비평(혹은 테마비평)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러한 제반 사실들과 그 사실과 관련된 다른 제반 사실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작가

20) Sarah Lawall, Critics of consciousness. The existential structure of Litera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참조.

21) 엘루트 입슈, D. W. 포케마, 20세기의 문학 이론, 세계의 문학 1984, 여름호, 줄고 의식비평의 개념과 적용 방법 시론등 참조.

의 의식의 현상을 탐구해야하고 그러한 의식의 움직임과 확장 또는 연계를 탐구해야 한다. 어떤 작가가 어떤 어휘나 이미지에 치중하고 있다면 이는 그 작가로서는 의식적인 필연성이 있는 것이고(이는 작가 자신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나타난 어휘나 이미지는 그 어휘나 이미지의 그물(연합망)로서의 의식의 퍼져나감을 추구해 볼 수 있다. 말하자면 한 작가의 사물에 대한 노에시스와 노에마의 관계가 어떠한 양상과 관계속에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의식비평이요 의식비평의 과제다. 한 작품 속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어휘나 이미지의 구조는 역시 變樣構造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변양구조를 몇가지 방법에 의해 原型構造로 추적해 들어갈 수 있다.²²⁾ 이와같은 방법으로 추적해 들어간 그 작가의 모태와 원본이 그 작가의 원형 혹은 그 작가의 개인적 신화(Myth of personal)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식비평은 문학현상학적 방법 즉 하이데거의 딜타이유의 해석학, 바슐라르 모로류의 심리 혹은 이미지, 쾰르트르류의 실존적 현상학, 폴레와 베베르류의 의식 또는 테마론 중의 하나인 〈의식〉을 문제로 하는 비평이며 이러한 의식비평은 그것의 방법이 주관적이라는 결점은 있지만 지나치게 외형에만 의존하여 그것을 분석하고 뜯어내는 데만 힘을 기울인 형식적 비평방법보다는 작품이나 작가 그 자체를 중시하는 비평태도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비평방법은 비평가 자신 또는 비평하는 행위 자체에 비중이 있는 것이라면 의식비평은 작품이나 작가에게 비중을 둔 작가 중심적 비평이다. 그런 점에서 의식비평은 인간주의적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VII. 결 언

위에서 말한 것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이 된다.

現象은 본체나 이데아 혹은 가상의 반대 개념으로 인간이 감성이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일이나 물건을 말하며 이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현상학이다. 현상학을 학문으로 창시한 사람은 훗서얼로서 그에 의하면 현상학의 대상은 의식의 체험이며 순수한 의식의 탐구이다. 현상학이 엄밀한 학문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명정성이 없는 선입견이나 독단에 은폐된 통속적

22) 이 과정의 설명은 줄고 앞 논문에서 시험해본 것으로 시험이긴 하지만 그 글을 참조할 수 있음.

현상을 거부하고 순수한 의식의 내면성을 추구해야 한다. 순수한 의식의 내면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형상적인 실재를 의식 속으로 끌어 들여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현상학적 환원이다. 현상학적 환원은 판단중지와 본질적 환원과 선험적 환원의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먼저 판단중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적 세계나 가상의 세계는 항상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것이며 이러한 불확실 불완전한 것에서 오는 판단 역시 불확실 불완전한 것이므로 이것의 판단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판단을 중지하고 나면 환원의 단계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첫 단계가 형상적 환원이다. 형상적 환원은 본질적 환원에 해당하며 사물이나 사실의 본질을 직관하고 모든 사상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에서 본질적인 사실 또는 사물의 본질로 옮기는 단계를 말한다. 이때 본질을 바로 들여다 보는 것을 본질직관이라하고 이같은 일을 하는 단계를 형상적 환원이라 한다. 그 다음 단계가 선험적 환원단계인데, 본질적 환원이 사실의 본질을 보는 태도와 그 단계라 한다면 선험적 환원은 사실의 본질을 의식의 내부로 끌어들이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같이 본질적 환원과 선험적 환원의 두 단계에서 경험적이고 자연적인 비순수한 상태의 사실들은 모두 배제하게 되는데 이 배제의 과정을 거쳐 남는 것이 현상학적 잔여이며 이 잔여가 곧 순수의식이다.

문학현상학의 방법은 해석적 현상학, 이미지의 현상학, 실존주의적 현상학 등의 방법으로 문학비평에 적용되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현상학적 잔여 즉 순수한 상태의 의식을 문제로 하는 비평이 의식비평인 것이다. 이때의 의식은 주체 혹은 작용과 객체 혹은 대상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이같은 의식의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작용이 의식 지향성이다. 이 의식지향성을 해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제는 노에시스와 노에마인데 노에시스는 의식의 실재적 요소, 작용하는 요소이고 노에마는 의식이 가는 대상에 있어서의 의미적 요소가 되며 이 둘 역시 불가분리의 관계를 지닌다. 이와같은 의식의 작용 즉 의식의 지향성 그리고 노에시스와 노에마의 현상과 이론을 문학작품을 산출해 낸 주체(작가) 또는 작품 해명의 방법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적용해 보려는 것이 의식비평이며 이 의식비평의 방법은 주관적인 비평 방법이라는 맹점은 있지만 작가와 작품의 종합적 해명과 향수에는 바람직한 가장 인간주의적인 방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위의 결론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현상——현상학——호서얼(학문적 체제로 정립)——현상학적 환원—— $\left\{ \begin{array}{l} \text{판단중지} \\ \text{본질적 환원} \\ \text{선험적 환원} \end{array} \right\}$
 ——의식(현상학적 잔여로서의)—— $\left\{ \begin{array}{l} \text{의식 지향성} \\ \text{노에시스와 노에마} \end{array} \right\}$ ——의식비평(이를 문학 비
 평에서 수용하고 적용한 것)